

21세기 한국 대학교육의 방향과 좌표

■ 참 석 자

김 광 역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김 우 창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안 병 영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 현 청 (대교협 사무총장)
 김 형 근 (대교협 기획·홍보팀장)

■ 기록 및 정리

현 경 석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 일 시

2000년 1월 17일 (월) 10:30 ~ 13:00

■ 장 소

사학연금회관 20층 보헤미안 회의실

사 회(김우창) : 오늘의 좌담주제는 '21세기 한국 대학교육의 방향과 좌표'입니다. 우선 그 동안 정부에 몸담으셨고, 교무처장 재직 경험도 많으신 안병영 교수님께서 화두를 열어 주시겠습니까?

안 병 영 :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을 회고해 보면, 해방 후와 비교해 고등교육이 상당히 팽창되었고, 어떤 측

면에서는 비대화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교육을 긍정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민주화와 경제발전 에 큰 힘이 되었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이 양적인 성장에서 탈피하여 보다 질적인 알찬 교육을 실시해야되는데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선진국 교육의 모방차원에 머물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앞으로의 대학교육은 이러한 모방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의 교육개혁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대학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여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성찰적 입장에서 서서 그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광 역 : 지난 세기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은 국가건설과 경제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개발·공급해 주는 역할 즉, 대학교육의 1차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대중화 되면서 공급 인력의 자질을 높이는 데는 다소 소홀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쪽에 치중하다보니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인 팽창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과학기술이나 지식을 창조하기보다는 만들어진 것을 수입하여 적용하는 데 치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대학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자격증 위주의 교육을 하는 곳이 되었다고 봅니다. 대학은 보다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생력과 안목을 갖춘 방향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이 현철 : 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세기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팽창을 한 반면 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

구나 특정 국가나 학문의 모방 현상이라든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의 차원에서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는 커다란 변화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이탑적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산업적인 시각도 가미되어야 하고, 공급자 위주의 교육관으로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또, 외국과의 학문적 연대 측면에서도 이제 모방이나 이식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주체성 있는 자국화 교육과 세계를 무대로 삼되 우리 교유의 것에 바탕을 둔 창의성 있는 세계화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 회 : 예를 들면 이공계 교육과 관련하여 해방 당시 박사 학위를 소지한 분이 국내에는 일곱 분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이었고,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과 우리 교유의 전통적인 학문 존중 사상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외중에 외래 학문은 쉽게 우리나라에 발붙일 수 있었고, 서구적

인 것이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너무 이쪽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병영 : 우리 나라는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교육열의가 강했고, 전통적인 선비정신이나 학문존중 풍토도 있었지만 신분상승을 위한 세속적인 욕구도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이 사회적 신분상승의 수단적인 성격이 강해진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학의 시장화와 연계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 회 : 그 점은 우리나라의 출세 문화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안병영 : 어떤 측면에서는 서구 학문 자체가 우리에게 경이함을 주었고, 그래서 이를 모방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또, 대학인들도 서구에서 학위를 받았고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 자기 자신과 학문의 주체성 같은 것은 뒤돌아 볼 여유가 없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이후 학계는 학문의 자기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 왔으나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물결에 휘말린 점도 있습니다. 결국은 학문의 자기 주체성을 세워가면서 한국화와 세계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광익 : 조선조를 되돌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학문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선진 학문이나 기술을 도입·적용하는 데는 그런대로 성공적이었지만, 서구, 특히 미국 일변도의 경향을 너무 선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대학이 형식적·외향적인 팽창에 지나치게 치우쳐 온 까닭에 스스로를 되돌아 볼 성찰의 기회를 포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 회 : 학문적인 수요에만 급급하다 보니 서구 학문의 외면

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내면적인 것은 충실히 받아들이지 못한 점도 문제입니다. 그 예로 미국 학문의 특징은 실용적인 것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다 보니 피상적인 것만을 모방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안병영 : 김교수님 말씀 대로 실용적·기능적인 학문 성향을 띤 미국의 학문 경향을 지나치게 강조해 온 느낌이 있고, 특히 사회과학 분야는 미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제는 우리의 것을 재검토하고 뒤돌아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온 교육관료들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현청 : 커리큘럼의 세계화나 국제 수준의 질 관리 체계 구축 등 열린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나라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교수님의 말씀처럼 교육개혁의 차원에서나 대학정책 수립에 있어서 미국 것을 뒤어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화가 반드시 근대화 개념이라 볼 수 없듯이 미국지향적인 개혁이 우리 토양에 반드시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광익 :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시행착오에 대하여 대학은 감시자 역할도 해왔습니다. 민주화나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전통적인 선비정신이나 학문·교육의 전통도 이러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교육을 제 나름대로 비교해보면, 단편적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토론 중심의 교육이고, 영국은 논문 중심의 학문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문의 변화과정에서 우리 나라는 서구의

새로운 유행에 쉽게 따라가는 님비성향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안병영 :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사회과학분야의 경우 비교·역사적인 연구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이 마치 우리에게 학문적으로 유일한 껌줄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 회 : 우리에게 미국 문화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고, 그 예로 작문 교육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도 이런 좋은 점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특징 중에 실용적인 측면과 정책과학만을 강조해 왔고, 이러한 미국적인 것이 우리 나라에 끼친 영향은 큰 것 같습니다.

안병영 : 미국의 학문이 우리 학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미국의 최신 이론들을 소개하기 위해 애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문의 성과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 회 : 이것은 식민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요?

이현청 : 물론 선진 대학교육의 장점을 배워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자생력을 배양하는 데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첨단과학이나 기술 등의 부분과 가치부분을 선별해서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나친 폐쇄적 자국주의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나친 문화식민주의적인 교육의 위험도 경계해야 합니다. 인터넷 환경이 일상화된 시점에서 탈 국적화 경향이 보편화 될수록 '뿌리교육'은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최신 이론을 빨리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음미할 부분은 음미해야 합니다.

김광익 : 이러한 문제들은 실용적 특성에 따라 당장 필요한 지식과 기술만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신 이론이나 기술·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과정을 성찰하기보다는 결과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들이 기술의 증속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사 회 : 이런 예가 적절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리카의 지도자 한사람이 선진국에 방문하여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귀국할 때 그 수도

꼭지를 달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수도꼭지가 개발되게 된 여건이나 과정을 무시하고 수도꼭지만 자국에 가서 설치하면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안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 대학에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예로 들어 외국에서 생성된 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서구의 학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 외국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우리 나라의 교육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즉, 21세기의 사회 변화와 전망 속에서 대학교육의 문제를 풀어나갈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영 : 세계화와 신 자유주의 영향으로 무한경쟁 시대에 진입하면서, 우리 대학들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학이 부가가치가 큰 분야에 집중적 투자를 하고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며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이 이제 더 이상 상아탑을 자처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단순한 경쟁력의 산실이 되기보다는 창의성의 요람이 되어야 하며, 시장적 수요에 적응하기보다는 학문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대학 개혁에 앞서, 개혁이 '왜',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가 되물어야 하며, 세계화가 던져주는 '빛' 못지 않게, 그것이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 대학교육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중 하나는 국가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국가와 대학이 갈등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병영 : 대학교육이 대중화의 길을 걸으면서,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이제는 질적 수준의 제고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중화된 대학교육을 다양화·특성화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 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국가는 오히려 '경쟁국가'의 모습을 보이며, 대학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열을 올릴 것입니다. 한편 대학은 학문 본연의 입장이랄까, 자신의 본령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국가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 회 : 또 다른 문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 측면을 소홀히 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병영 : 국가가 시장경제로 나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된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얼마간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최근 '생산적 복지'가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갈등의 표현이 아닐까요?

이현청 : 생산적 복지개념과 함께 교육복지의 개념도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교육인권적 차원에서 소외받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에게도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국가경쟁력이 배가되기 때문입니다.

김 광 역 : 어쨌든 미국 중심의 세계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세계관도 필요합니다. 국가를 강조하는 국가중심주의를 폐쇄적인 국가(민족)주의라고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나 민족도 열린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세계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민족 공동체도 이제는 점진적으로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보다는 전체(집단)에게 어떤 문제를 돌리려고 하였는데, 이제는 공동체의 문제도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학이 생활방식(Life Style), 나아가 세계관(World view)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과학도 강조했지만, 인문·사회과학 특히 정치나 사회윤리, 또는 시민정신과 시민교육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학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도 사회적 진출의 기회로서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개념에서 살펴보면, 대중화란 면에서는 소비자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학문의 생산자라는 측면에서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병 영 :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가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생산직 노동자가 5분의 1에서 6분의 1로 줄어들었고, 2000년대에는 8분의 1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사무직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창조적 지식인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대학에서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그리고 고부가가치가 있는 교

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의식있는 엘리트로 키워내야 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 회 : 21세기 사회에서 과학 기술과 세계화의 조류는 수용해야 할 상황이고, 국가와 민족의 개념은 약화 추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교육개혁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21세기의 사회 변화, 즉 미래학적인 전망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 광 역 : 21세기는 생활이나 세계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통적인 사회체제가 급격히 해체되고, 계급이나 성차별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사회로 발전하리라고 보지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않는 시장경쟁력이나 생산성을 높이지는 주장은 인간을 소외시키게 되고, 과학 지식 등과 같은 영역은 탈 국가적인 상황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학도 이에 따라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 회 : 21세기에 국가나 민족, 가족 등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인간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제도와 윤리적 가치가 살아남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광역 교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셨으면 합니다.

김 광 역 : 국가는 가상국가의 개념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전통적인 가족개념은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전개되는 변화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변화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학교육과 사회교육이 서로 붙어 있지 않아야 하며, 평생교육과도 연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 성공한 사람보다 학교를 떠나 성공한 사람, 또는 일확천금한 사람을 너무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병영 : 21세기를 조망하면 희망적인 것보다 암울한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는 약화되고 시장은 강화되면서, 또 노동은 약화되고 자본, 그리고 지식·정보는 강화되는 현상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또 더불어 사는 사회를 생각하면서 대학이 인간다운 삶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예상도 듭니다. 한편 민주적 시민의 역할이라든지 제 3섹터, 즉 자발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인터넷을 통한 소규모 공동체 형성과 그 역할이 대두되리라 봅니다. 개인의 국가의식이 회복해지기 때문에 민족공동체 기능은 약화되고, 전형적인 가족구조는 붕괴될 것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교육이 계속 요구되기 때문에 대학교육도 점차 힘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사 회 : 미국의 사회학자가 주장한 예를 보면 모든 계층에서의 직업의 불안정이 예견되고, 국가도 기업의 하부구조로 강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하부 구조화가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사회는 여러 가지 주도적 활동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면서 이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과 인문교육의 조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김광익 :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정 부문에만 치중하는 편중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조정 역할이 취약하여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로 인해 인문교육의 소홀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

학기술자도 인문학적 소양과 윤리를 갖추도록 해야 하고, 과학기술과 인문교육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병영 :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투자하는 것은 많은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문과학과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의 성과가 인간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문과학적 지식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 학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책의 실시가 필요하고, 한두 가지 분야에만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 회 : 과학기술의 투자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인문과학이나 기초과학에 대한 육성도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도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학문과 현장이 함께 고려된 개혁 정책이 필요합니다. 미국 Harvard College의 경우 실용적이고 응용적인 것은 대학원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기초적인 소양은 학부에서 주로 다루는데 이러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안병영 : 문화적인 감수성이란가 인문학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이 과학 기술에서도 인간을 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연계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 회 :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대학교육이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 점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현청 : 21세기는 어쩌면 전통적 대학의 위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 캠퍼스 중심의 대학체제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상대학과 재택학습 등 대학 교육체제와 방법론의 발달, 그리고 재 교육의 확산 등 교육대상과 방법체제 등의 변화는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간의 학습 이동의 세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평생 학습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안병영 : 과거에는 대학 진학 학령기의 대상들만 대학에 진학하였는데 이제는 평생 학습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직업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자기 변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교육이라든가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 시대가 열리면서 가상공간을 통한 가상대학의 발전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전통적인 교육과 새로운 교육체제와의 조화

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김광익 :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 국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산학협동과 개인의 재교육을 위하여 대학의 역할은 새로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이 인문학적인 세계관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떤 대학은 학문중심의 대학이 되고, 어떤 대학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대학이 조성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 회 : 장시간 좌담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은 결국 출세의 도구가 아니고, 즐거운 배움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체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